

經濟政策調整會議 案件

最近의 經濟動向

2000. 10. 30

財 政 經 濟 部

《 目 次 》

I. 最近 經濟動向에 대한 認識 / 1

1. 經濟成長 / 1

2. 物價 및 經常收支 動向 / 2

3. 實物經濟 動向 / 3

4. 株式 및 外換市場 動向 / 5

II. 現 經濟狀況에 대한 對應方向 / 6

<참고> 한국경제에 대한 外國의 시각 / 8

I. 最近 經濟動向에 대한 認識

◇ 우리경제가 잠재성장경로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제수지·물가 등 대내외 안정세가 유지

○ 다만, 유가불안, 미국경제의 불안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, 대내적으로도 구조조정 불확실성, 신용경색 불안 등으로 인한 소비·투자심리의 위축 현상이 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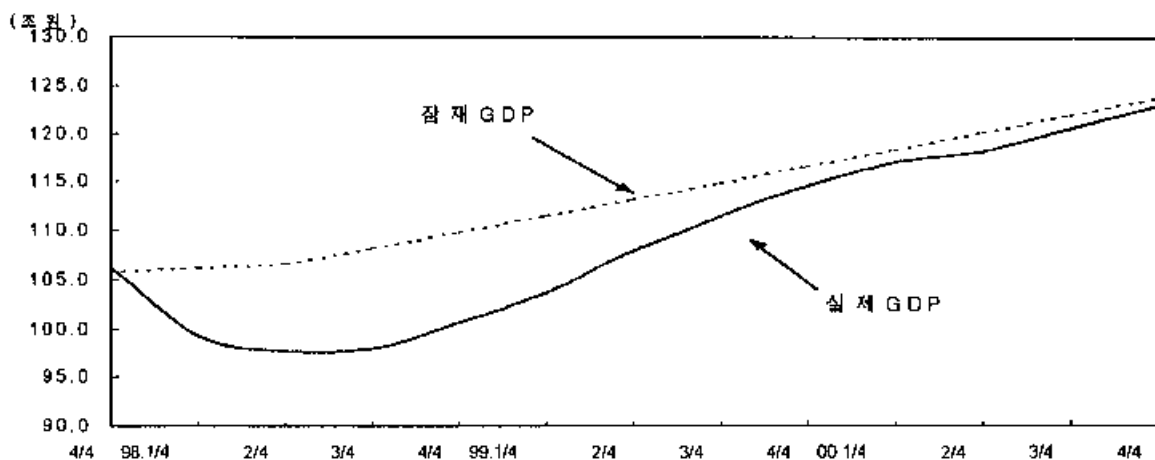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주식시장의 진폭이 확대

- 다만, 주식시장에 비해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

1. 經濟成長

□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을 제외하면,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5~6%대의 잠재성장수준으로 복귀하는 모습

○ 금년중 당초 예상대로 8%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, IMF이전의 정상성장 수준에 접근



2. 物價 및 經常收支 動向

□ 9월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월대비 1.5 % 상승했던 소비자 물가는 10월들어 전월대비 0.3% 하락하여 안정세를 회복

* 9월중 물가 상승요인 : 농축수산물(0.80%p), 석유류(0.24%p), 의복
수가(0.32%p)

* 10월중 물가 상승요인 : 농축수산물 (△0.63%p), 석유류(0.19%p)

□ 금년말까지 소비자 물가는 국제원유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, 최근의 안정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(%)

	99	2000.1/4	2/4	7	8	9	10	1~10
· 전월(분기)대비	-	0.3	0.1	0.3	0.8	1.5	△0.3	
· 전년말대비	1.4	0.8	0.8	1.2	2.0	3.5	3.2	
· 전년동기대비	0.8	1.5	1.4	2.9	2.7	3.9	2.8	2.1

□ 한편, 9월중 경상수지는 높은 수출호조세로 18.2억불의 흑자를 기록

○ 10월이후에는 유가상승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흑자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나 연간 흑자목표(100억불)은 무난히 달성 전망

* 1~9월중 경상수지 흑자 누계 : 77.3억불

(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)

	97	98	99	00.1/4	2/4	7	8	9	1~9
○ 경상수지(억불)	△82	404	245	15	27	8	9	18	77
· 통관수출(억불)	1,362	1,323	1,437	393	435	145	149	152	1,273
(증가율, %)	(5.0)	(△2.8)	(8.6)	(30.0)	(21.8)	(23.1)	(30.9)	(27.3)	(25.9)
· 통관수입(억불)	1,446	933	1,198	388	398	137	134	133	1,190
(증가율, %)	(△3.8)	(△35.5)	(28.4)	(51.8)	(38.3)	(39.8)	(36.2)	(31.1)	(41.5)

3. 實物經濟 動向

□ 물가·국제수지의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, 소비·투자 심리 위축현상이 지표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

- 생산의 경우 반도체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8월에 비해 증가세 둔화
- 설비투자도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지속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
- 건설투자도 국내건설수주액이 △18.4%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 지속

	(전년동기대비,%)						
	98	99	2000.1/4	2/4	3/4	8	9
○ GDP성장율	△6.7	10.7	12.8	9.6	-	-	-
- 산업 생산	△6.5	24.2	23.4	18.3	19.6	24.6	15.1
(반 도 체)	(53.1)	(46.0)	(28.4)	(42.1)	(53.9)	(69.1)	(38.1)
(반도체 제외시)	(△14.1)	(19.0)	(22.1)	(11.8)	(9.9)	(12.7)	(7.9)
- 설비투자추계	△37.7	43.5	57.3	34.2	29.0	38.1	18.9
- 국내 건설수주	△42.6	0.8	75.9	20.4	8.5	45.2	△18.4

- 도소매판매 등 소비관련지표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(실질GNI)의 하락, 대내외 경제여건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둔화세

	(전년동기대비,%)						
	98	99	2000.1/4	2/4	3/4	8	9
○ 민간소비	△11.4	10.3	11.1	9.0	-	-	-
- 도소매판매	△12.7	13.0	14.4	12.4	7.6	8.2	6.1
- 내수출하	△22.8	21.1	23.7	14.6	10.3	14.1	6.2

□ 그러나, 이러한 경기둔화세는 그간의 기업경기조사(BSI)와 소비자의 태도조사(CSI)결과 등을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

* BSI실적치(한 은) : (99.3/4) 108→(4/4) 116→(00.1/4) 104 →(2/4) 102→(3/4) 97

* CSI평가지수(통계청) : (00.1월) 104 →(3월) 101→(5월) 98→(8월) 96→(9월) 80

주) 기준치 = 100,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

□ 비록, 소비·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했지만, 그 증가추세는 과거추세보다도 아직 높은 수준

○ 과거 장기시계열자료와 비교해보아도 9월의 산업생산 증가율 15.1%는 '88년 이후의 연간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

- 향후 8~10% 수준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서서히 둔화 되더라도 견조한 성장세로 연착륙하는 모습으로 이해

<위기이전의 GDP 및 산업생산 증가율(%)>

	89	90	91	92	93	94	95	96	평균
GDP증가율	6.1	9.0	9.2	5.4	5.5	8.3	8.9	6.8	7.4
산업생산증가율	3.3	8.8	9.6	5.8	4.4	11.1	12.0	8.7	8.0

4. 株式 및 外換市場 動向

- 최근 증시는 美 주가 하락, 신흥시장 불안 확산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큰 진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

	99말	00.9말	10.19	10.25	10.26	10.27
거래소(p)	1,028.07	613.22	515.04	542.33	523.67	515.34
코스닥(p)	256.14	90.17	79.84	80.86	79.38	78.37

- 이러한 진폭 확대는 미국 첨단기술주 3/4분기 실적발표와 태국, 필리핀, 아르헨티나 등의 금융불안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수·매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기인

- 한편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

	99말	2000.9말	10.25	10.26	10.27	전일비
원/달러	1,138.00	1,115.00	1,137.10	1,137.40	1,135.90	1.5원 ↓
[종가]	(5.8)	(2.1)	(0.1)	(0.1)	(0.2)	

()는 전년말비 변동율(%)

- 금년들어 엔화·동남아 통화 등 주요국 통화들이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

<주요국 통화 변동율>

(단위 : %)

	한국	일본	유로	대만	싱가폴	태국	인니	필리핀
99년중	+5.8	+12.3	-13.9	+2.3	-0.5	-2.0	+12.7	-3.6
00년중 ¹	+0.2	-5.8	-17.2	-2.5	-5.1	-14.7	-21.8	-21.2

주/ 10.27일 종가기준, +는 절상, -는 절하

II. 現 經濟狀況에 대한 對應方向

- ☐ 최근 실물경제의 둔화는 비록 우리경제의 적정성장률에도 복귀과정에서 예견된 것이기는 하나, 정부는 소비·투자 심리의 위축에 주목
 - 심리적 요인이 유가불안 등 대외적 여건 악화에도 기인하나, 특히 구조개혁 성사여부에 대한 불안,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신용경색 우려 등에 기인하는 점을 주목
- ☐ 우리 경제를 보는 외국인의 시각도 관망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, 기 약속한 개혁조치의 이행과 기업·금융 구조 조정 추진상황을 주시
 -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큰 폭의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는 차별적인 시각을 견지
 - 그러나, 기업회계의 투명성,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상황과 함께, 특히 부실기업 처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가 얼마나 원칙에 맞게 실천되느냐에 관심 집중
- ☐ 정부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시장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
 - 예금부분보장제도, 2단계 외환자유화 등 기약속한 개혁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
 - 다만, 자금의 급격한 이동 및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

- 외국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, 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
 - 투명경영의 선결요건인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공인 회계사의 선임 및 직무수행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정비
 - 투명·책임 경영관행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안도 입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계획
- 한편, 2단계 금융·기업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추진
 -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등 기발표한 증시안정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, 투신·연기금·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증시수요기반 확충
- 금융·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대책도 병행 추진
 - 최근 일부 벤처투자자의 탈법을 철저히 조사하되, 시장 경제원칙에 부합하는 지원은 지속
 - 유통업·건설업 활성화 등 지방의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

◇ 중장기적으로 5~6%의 적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물경제기반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튼튼한 경제 하부구조를 구축

— <참고 :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의 시각 > —

◇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지속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확대

- 일부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(10.22)
(Morgan Stanley 6.9→6.6%, Goldman Sachs 6.5→5.5%)

◇ 한편, 경제여건 악화는 국민단합을 촉진시켜 오히려 구조조정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

- 위기의식 확산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호기를 제공하므로 숨겨진 축복(a blessing in disguise)이 될 수 있음
(국제금융센터의 월가 투자가들 시각 분석, 10.5)

◇ 한국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외국인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와 달리 한국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구조조정 미흡시 대규모 외자 유출 가능성 경고

- 문제기업의 선별 및 처리방안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정부정책에 전적으로 찬성 (Citi은행, 10.16)
- 부실기업이 금융자산을 낭비하고 있어, 부실기업 정리 실패는 제2의 위기 야기 가능 (Moore Capital의 한국물 투자전략 보고서 「Vampire Walking」, 10.17)

◇ 문제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칙(正道)에 맞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며, 특히 회생불가능한(non-viable) 기업의 처리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

- 한국 신용등급 조정은 금융 및 재벌의 구조적 취약성이 어느정도 원칙에 맞게 치유되는가에 달려 있음(Moody's, 10.12)
- 한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철저하게 수행하고, 기업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외국인의 신뢰회복 가능
(재정부차관과 월가 펀드매니저와의 토론회 제기, 10.26)